

보도해명자료 (‘18. 8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탈원전 세계적 추세’ 정부 주장, 현실과
달라(‘18. 8. 20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세계 원전 설비와 원전 발전량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
“탈원전이 전세계적 추세”라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 현상임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세계원자력협회(WNA)의 발표(‘18.8.15)에 따르면 전세계 가동원전이 1기
증가했으나, 이는 중국(18기 건설중), 동유럽·러시아(11기 건설중) 등을
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활발했기 때문이며, OECD 선진국에서는 원전
발전비중이 감소 중

< 세계원자력협회(WNA) 원자력 성과보고서(‘18.8) 주요 통계 >

	’16		’17	아시아	서유럽	동유럽	북미	남미	아프리카
가동 가능	447기	➡	448기 (+1)	140 (+3)	131 (-2)	50	120	5	2
신규 건설	61기		59기 (-2)	40	4	11	2 (-2)	2	-
운영 중단	3		5	2	3	-	-	-	-

※ 괄호 안의 숫자는 ’16년 대비 증감

- ‘17.11월 기준 세계원자력협회(WNA) 통계와 ‘17.8월 발표한 IEA의
보고서(Electricity Information)에 따르면, 전 세계 주요국들, 특히
OECD 국가들은 원전을 감축하는 추세임

- OECD 35개국 중 71%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, 원전 제로화 또는
원전 감축을 추진 중(WNA 통계, ’17.11)

* (원전없는국가) 13개국, (원전제로화) 5개국, (원전감축) 7개국. (원전 없지만
건설계획) 2개국, (원전 확대 또는 지속) 8개국

- 또한, 발전량 기준으로 보아도, OECD 국가들은 ’00년 이후 원전
발전량이 연평균 △0.8%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, 태양광과 풍력
발전량은 각각 38.5%, 21.0%씩 증가(IEA 보고서, ’17.8)

< OECD 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추이 >

(단위 : TWh)

	’74	’00	’10	’16(p)	연평균 증가율 (’74~’00) (’00~’16)	
Total	4,533	9,844	10,973	10,964	3.0	0.7
Nuclear	242	2,249	2,288	1,967	9.0	-0.8
Hydro	1,027	1,414	1,423	1,469	1.2	0.2
Solar	-	1.25	33	229	-	38.5
Wind	-	29	269	599	-	21.0
Coal	-	3,793	3,741	3,045	-	-1.4
Oil	-	637	316	221	-	-6.4
Natural Gas	-	1,544	2,580	3,020	-	4.3

※ 출처 : IEA Electricity Information (2017.8.1)

- 한편, ‘18.7월 발표된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, 전 세계 신규 발전
설비 투자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으며, 원전의 비중은 미미함

- 전 세계 기준, 전체 4,470억달러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6.7%가
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, 원전은 3.8% 수준

- OECD 국가 기준으로도, ’17년 기준 1,900억달러의 신규 발전설비
투자의 73.2%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, 원전은 4.2%에 불과

- 일본은, 아베총리 집권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으나, 원전 발전비중이 '10년 25%에서 '16년 1.7%로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심사 지연과 지자체 동의문제 등으로 현재 9기만 가동중(가동가능 원전수는 전체 42기)
-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 목표를 20~22%로 정하였으나, 이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목표이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0%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목표임.

구 분	3차 예기본 ('10년)	4차 예기본 ('14년)	5차 예기본 ('18년)
화 력	30%	50%	50%
신재생	20%	22~24%	22~24%
원자력	50%	20~22%	20~22%

- [illegible]